



본란의 기사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행하는 「일간 무역」에서 발췌 게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한국무역협회(Tel : 551-5454)로 연락바랍니다.

1. 세계 반도체산업 제2 전환기

일본전자기계공업회(EIAJ)는 최근 '반도체산업의 현황과 장래전망'이란 보고서를 발표, 일본 반도체 메이커들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면서 수익성이 높은 비메모리 분야의 확충과 상호보완에 의한 절도있는 경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IAJ가 이 같은 보고서를 발표하기는 처음있는 일이다. 보고서는 일본 반도체 메이커들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원인으로 투자효율의 악화와 일본업계의 과당경쟁체질, 기술자 부족 등을 들었다.

보고서는 우선 세계의 반도체산업이 '제2의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이유로 ① '93년에 미국 반도체시장이 실로 7년만에 일본을 앞질러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재부상한 점과 ② 역시 마찬가지로 7년만에 세계의 반도체시장에 접하는 미·일 메이커의 세어가 역전된 점 ③ '83년 이래 10년만에 미국 반도체업계의 설비투자액이 일본 업계를 능가한 점을 들었다.

미·일간의 지위가 재역전된 배경에는 단순한 경기순환 뿐만 아니라 반도체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도 분석하고 있다.

최대의 포인트는 일본기업의 투자효율의 저하경향을 지적할 수 있는 데 과거 10년간 매출액에 접하는 설비투자액을 보면 평균치가 24%에 달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도 14%나 지출하고 있다.

2. 미국, 반도체 수주 최고 기록

미국의 반도체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업계에선 퍼스널컴퓨터 수요가 예상 이상으로 호조여서 이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일본 경제신문 휴스턴발 보도에 따르면 미 반도체공업회(SIA)가 발표한 4월의 미 반도체 시장BB율(출하액에 대한 수주액 비율)은 1.14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수주액은 전년동월보다 30% 가까이 증가, 사상 최고였던 3월의 실적을 웃돌았다. BB율은 작년 11월 수급균형을 나타내는 1.00을 밀돈 이래 상승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금년들어서는 4월의 상승으로 4개월 연속 1.10을 웃돌았다.

4월의 반도체 수주액은 전년동월보다 28.5% 증가한 28억 9,000만달러, 출하액은 30.7% 증가한 25억 2,700만달러였다. 4월의 수주액은 사상최고였던 3월의 실적도 4.6% 웃돌았다.

반도체 수요가 이같이 활발한 것은 퍼스널컴퓨터 및 서버 등 중소형 컴퓨터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엔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퍼스널컴퓨터 판매의 전망에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 퍼스널컴퓨터 판매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으며 일부 기종에선 생산이 뒤따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4월 중에도 수주액이 대폭 신장함에 따라 반도체업계 내에선 앞으로 메모리 등 퍼스널컴퓨터용 반도체의 품귀상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3. 미, 대 중국 MFN연장 불투명

빌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인권 및 최혜국대우(MFN) 연장문제에 대한 최종 의견 조정을 위해 비밀특사를 북경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맥커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미 행정부는 조용한 외교협상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워렌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이 중국과 의견교환 경로를 열어 놓기로 결정했다고만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미 행정부의 고위관리는 미국 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인사를 특사로 파견했다면서 최근 소문이 나돈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나 즈비그뉴브레진스키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특사가 아님을 확인했으나 특사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거부했다.

또 중동평화문제로 예루살렘을 방문중인 한국정부 고위관리는 외교정책에 대한 언론 브리핑에서 미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최혜국대우 적용을 연장하되 중국군이 생산한 제품이나 국영기업들이 수출하는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고관세를 부과하는 타협방안을 모색하고 있긴 하나 고관세를 부과할 대상품목을 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국측이 한편으로는 일부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유화정책을 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탄압을 강화하는 등 양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어 최혜국대우연장 결정을 내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정부가 지난 주에는 반체제 인사인 첸 지밍 씨를 질병치료 목적으로 석방하는 조치를 취한 데 반해 지난 5월 17일에는 미국 VOA 방송과 인터뷰한 천안문사태의 주역인 왕 단 씨와 관련기자를 구속하는 강경조치도 취했다.

4. 미·일 통상협상 돌파구 마련

미국과 일본은 포괄경제협회의 재개를 위해 무역자유화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WSI)지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측 협상참가자의 말을 인용, 미·일 양국은 지난 주부터 워싱턴에서 열린 실무협상에서 그간 미국측이 주장해 온 것과 같이 일본의 수입에 대해 수치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에 의견전근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측은 그간 수입자유화를 수치적으로 약속하는 어떠한 형태의 기준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포기하면서 분야별 시장개발 목표를 설정하는 동시에 목표달성정도를 측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는데 합의할 것이며 상당한 수입확대가 필요하다는 점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대신 미국 측은 각 분야별 수치목표를 일본 측이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무역제재를 바로 가하지 않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양측이 다시 강구하도록 하는 다소 완화된 조건을 수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국 측은 수치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그간의 수입증가추이와 다른 선진국들의 수입동향을 반영하는 등 지나친 목표를 요구하지 않고 수치목표 운영에도 융통성을 부여해 일본 측이 그간 지적해 온 관리무역에 대한 부담을 덜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측 협상 참가자는 이제 양국간 통상협상은 신뢰성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며 수일내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와 관련, 일본 측이 매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미국은 그 방안에 대해 수정안을 내놓는 방식으로 이번 협상이 진행됐기 때문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측은 통신장비의 수입증가율을 연간 30%씩 확대토록 하는 등 수입자유화 목표를 상당히 높게 요구하고 있는 데다 일본 측

은 거시경제 정책이나 세금감면 등에 대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양국간 합의를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관계당국자는 전했다.

5. 미·일 포괄경제협약의 재개 합의

미국과 일본은 지난 5월 19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린 통상실무협상 결과, 지난 2월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양국간 포괄경제협약의 재개하기로 하는 동시에 보험, 정부조달, 자동차 및 부품 등을 포함한 분야별 실무협상을 즉시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미키 캔터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양국간 통상실무협상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캔터 대표는 이번 협상에서 일본 측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내수주도형 경제성장 목표를 수립,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경쟁력있는 외국산 제품과 서비스의 일본시장 접근을 대폭 확대, 경상수지 흑자를 중기적으로 상당한 수준까지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 측은 미국을 비롯한 외국으로부터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재정 및 금융부문 등에서도 경상수지 흑자축소를 뒷받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특히 단순한 규정 및 절차를 변경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장접근 확대를 통해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 되도록 하는 결과 지향적인 목표를 설정하기로 했으며 목표의 진전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캔터 대표는 그러나 미국은 반도체협정과 같은 수치목표 설정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며 분야별로 설정될 질적·양적기준도 협정의 성과를 결정하는 척도로만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국은 포괄경제협약의 종결시한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으나 6월 12일 파리에서 열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의시 일본 외상과 만나 포괄경제협약의 진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6. VCR 대체 DVP 공동개발

기존의 VCR을 대체할 DVP(디지털-비디오 플레이어)의 개발과 생산에 세계주요 전자메이커들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월 스트리트 저널(WSJ)지는 일본의 소니사와 네덜란드의 필립스 일렉트로닉스사가 화면과 음악을 2시간 이상 디스크에 담을 수 있는 DVP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으며 타임 워너사와 도시바사도 이와 유사한 디지털-비디오 디스크시스템을 이미 공동 개발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도시바사와 타임 워너사는 디지털-비디오 디스크시스템의 세계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플레이어 개발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 새로운 비디오-CD 플레이어는 고도의 디지털 압축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고화질과 음향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기존의 제품에 비해 훨씬 긴 영상을 재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비디오 플레이어 분야에서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영상을 장시간 동안 재생할 수 있는 이 비디오-CD 플레이어는 30억달러에 달하고 있는 VCR 시장을 강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7. 중국의 GATT 가입조건 협상타결 희망

피터 서덜랜드 GATT 사무총장은 향후 수 주 내로 중국의 GATT 및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조건에 대한 협상을 타결지을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했다.

서덜랜드 총장은 지난 주의 방중 결과를 마

무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GATT 가입 문제에 대해 중국 최고 지도자들과 회담을 가진 결과, 중국이 금년 내로 GATT에 가입하는 문제는 어려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방중기간 중 GATT 가입조건에 대한 협상에 있어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는 점에 크게 고무돼 있다면서 향후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같은 협상을 추진할 여지를 최대한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관련, 내년 1월 1일 발족예정인 WTO에 중국이 창립멤버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한 최종협상의 타결이 향후 수주 내로 이루어 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덜랜드 총장은 다만 제한된 시간 내에 협상을 타결짓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중국 지도자들은 자신과의 이번 회담에서 특히 미국의 대중 최혜국지위 갱신문제를 GATT 가입의 최대 장애물로 거론했다고 밝혔다.

중국 지도자들은 또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개도국으로 인정돼야 하며 또 그에 상응하는 특별대우도 받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서덜랜드총장은 덧붙였다.

8. 중국, 직접회로개발에 대외협력 모색

세계시장을 무대로 저급의 개인용 컴퓨터 및 주변장비의 주요 공급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이 컴퓨터 산업에 필수적인 집적회로를 공동 개발하기 위한 외국인 파트너 물색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개인용 컴퓨터 생산에 필요한 거의 모든 집적회로의 공급은 현재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적회로 생산에 있어서 대외협력이 무엇보다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100만대의 개인용 컴퓨터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개인용 컴퓨터 및 프린터, 모니터, 회로판의 생산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저급의 개인용 컴퓨터를 다량으로 수출, 외화를 벌어들여 고급 시스템과 기술을 수입함으로써 컴퓨터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 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9. 중국, 수출증가를 수입 앞질러

중국의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앞지름에 따라 무역적자폭이 좁혀지고 있다.

금년 초부터 4개월 동안 활발한 수출활동에 힘입어 중국의 무역적자는 전년동기에 비해 2,000만달러 줄어든 17억 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세관통계에 의하면 이 기간중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578억 4,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1.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수입은 20.3% 늘어난 297억 9,000만달러, 수출은 22% 증가한 280억 4,000만달러에 달했다. 또한 이 기간중 수출증가율은 1·4분기 중의 증가율인 18.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중 일본이 중국의 최대 교역파트너인 것으로 판명됐는데 양국간 교역규모는 119억 3,000만달러에 달해 전년동기대비 34.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국의 대일수출은 33.2% 증가한 49억 6,000만달러, 수입은 36.1% 늘어난 69억 7,000만달러에 달했다.

일본에 이어 홍콩이 중국의 제2위 교역파트너로 부상했으며 양국간 교역규모는 95억 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유럽연합(EU)과의 교역은 84억 3,000만달러, 미국과의 교역은 83억 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한편 러시아와의 교역은 14억 1,000만달러로 40.8% 감소했다.